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실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국회 청문회 통해 진상규명 필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와 관련해 금감원이 특별감리 결과 회계분식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항통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난해 문제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이 석연치 않는데, 그 핵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가치 문제였고 이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면서 "전날 금감원의 발표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이 과정에서의 삼성측의 부당한 압력을 포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2017년도 업무보

고'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제일모직 주가와 관련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상승시킨 정황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년 연속 적자기업이었는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2015년에 엄청난 흑자가 나는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합병 전 삼성물산의 가치에 비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고, 제일모직 주식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이재용 일가의 이해에 맞게끔 합병가액이 인위적으로 변경됐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당한 개입 여

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봤다.

한편, 전날 금감원의 조치사항통지의 핵심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회계분식 자체만도 문제지만,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판단이 지난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가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측은 삼성물산의 합병 시너지의 핵심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잠재력을 주장했는데, 금감원이 이 과정에서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는 당시 합병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합병가액 자체도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민평당 전북도지사 후보 임정엽 전 완주군수 확정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확정했다. 평화당은 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임 전 군수는 현재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위원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당 전북지사 후보로 의결했고 공관위 의결을 존중해서 선거승리를 위해 인준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호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평화당 후보로 저를 결정한 것에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승도를 내 도민들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평화당이 지역을 명실상부하게 바꿔놓고 힘차게 전진할수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전북에는 병들고 늙은 백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사냥을 잘하는 매가 필요한 시기"라며 "도민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도정을 끝내길 바란다. 저는 완주군수할 때 전국 76등이던 완주를 5년만에 1등으로 만들었다. 저는 당과 협조해 새로운 대안과 합한 전진을 위해 승리하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군수는 3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반도 봄 축복 위한 국민" ... 한·터키 정상회담

교육 등 분야 양국간 MOU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함께 축복하기 위해 방한한 첫 번째 국민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한·터키 소규모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네 번째 방한인데, 이렇게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준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잘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터키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의 매우 가깝고 오랜 친구다. 또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를 흘렸다"며 "이러한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 국민들은 터키를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고위급 교류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투자를 매우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터키는 지난 15년간 GDP가 4배나 증가하고 세계경제 규모 17위 국가로 도약하는 등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터키와 한국의 관계가 다른 차원

으로 한 번 더 격상되는 것을 원한다"면서 "두 나라 무역 규모가 더 많이 증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를 볼 때 최근 몇 년간 활발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국면을 맞기를 바란다. 저희 방위산업을 필두로 다른 모든 분야에 모든 차원에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방한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소규모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교육·산업·정보통신·보건의료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진성 기자

"정당이 경쟁해야 전북이 발전"

김광수 의원, 민평당 전주갑 지역위 전진대회서 승리 결의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는 2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 전진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전진대회에 참석한 김광수 의원은 "42일 남은 6.13지방선거는 전라북도가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며 "정당이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주는 다시 과거로의 회귀하는 것으로 벌써부터 오만함에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전북발전을 위한 경쟁이 나설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

했다. 행사에 참석한 후보자 및 당직자들에게는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당직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자세로 오직 전북발전과 민생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하며 "겸손, 성실한 자세,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개발로 지지율 정치가 아닌 진정한 민생정치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민주평화당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이 선택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평화당 후보자들이 지역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김제지역 당원명부 유출 의혹 수사해야"

나유인 김제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나유인 김제시장예비후보는 김제지역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2일 나유인 예비후보는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월27일 경선 출마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철학, 지방 적폐청산 추진, 지방분권의 취지 등에 어긋나 애당 차원에서 공천절차의 문제점 토론 없는 감관이 여론조사기관의 공천추진 부당성을 지방언론과 함께 문제 제기한바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 지역의 민주당 압도적 지지여론 때문에 각 지역마다 유능하고 훌륭한 신진인물들이 개혁공천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믿고 민주당에 입당하고 공천경쟁에 참여 하였으나 전혀 개혁 공천이 아니었다."며, "토론

없는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구태 구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선 참여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만큼 엄격하고 공정하리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선되지 않은 경선이었고 틀에 맞춘 경선이었으며, 여론 조사기관은 전북도당이 수의 계약한 기관이고 여론 조사 중 후보자 참관인의 내부 참관을 저지 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번 성명서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안지역 권리당원 명부 유출사건은 "부안지역민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지구당인 김제 지역 시장 경선에서도 의혹 여론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바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경선이 종료 되기 전 신속한 수사와 진상과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 경쟁 후보자 3명 명예훼손 고발

김석철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의 증조부 정읍동초등학교 초대교장 경력과 관련, 후손인 김철민씨 등 4명은 1일 이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한 김영재, 유진성, 우원규 등 예비후보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포) 및 명예훼손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이들 후손은 김석철 후보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증거자료까지 밝혔는데도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김석철 후보측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반박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